【논문】

피아제의 발생론적 인식론과 헤겔의 변증법*,**

조 종 화

【주제분류】 인식론, 변증법
【주제어】 균형, 조작, 투사, 부정성, 안티노미
【요약문】 피아제의 발생론적 인식론과 헤겔의 변증법은 정신적이고 활동적인 유기체에 근거한 역동적인 이론들이다. 피아제의 발생론적 인식론은 헤겔의 변증법에 비해 우연적인 요소들의 영향에 열려져 있으며, 체계 개방성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그의 갈등-균형-이론은 형식논리학의 무모순성의 원리에 근거하면서 모순, 안티노미의 생산적인 역할을 부정하고, 투사와 투사의 철회 사이의 내재적이고 필연적인 관계를 천착하지 않으며, 이를 주체의 조작적 전략으로 대체한다. 헤겔의 변증법은 피아제의 발생론적 인식론과 비교해서 일면 체계 폐쇄성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자기관계하는 부정성에 근거하는 모순, 안티노미의 생산적인 역할을 중시하며, 반성의 본질적인 구조, 즉 타자에로의 반성과 자기 내로의 반성 사이의 내재적이고 필연적인 관계를 추구한다. 케셀링은 피아제의 발생론적 인식론이 지니고 있는 역동성을 재구성하면서 헤겔 변증법이 지니고 있는 형이상학적 찌꺼기를 제거하고 헤겔 변증법적 방법의 서술 개방성을 추구한다. 케셀링의 변증법적 모델은 헤겔의 '자기관계하는 부정성' 개념이 지니는 역동적인 통일구조를 명확히 정식화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헤겔 변증법에서 모순, 안티노미의 생산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헤겔 모순 개념의 본질을 형성하는 '자기관계하는 부정성' 개념을 외재적인 방식, 즉 피아제의 경험과학적 가설과 형식논리학의 한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설득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A2A01016603)
** 이 논문은 2013년 12월 14일 한국헤겔학회 월례발표회에서 발표된 글을 수정, 보완한 논문임.

Ⅰ. 머리말

피아제(J. Piaget)는 심리학 분야에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스키너의 행동주의 심리학과는 다른 분야, 즉 발생론적 인식론으로 인류의 정신사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그는 인간을 '활동적인 유기체' 또는 '자동규제적인 유기적 체계'로 간주한다. 이 유기체는 자신의 행위에 근거해서 자신의 발전단계에 상응하는 독자적인 현실성을 구축하는데, 이것을 피아제는 '실재성의 구성'이라 부른다. 이러한 실재성의 구성과정에서 유기체는 자신이 처해있는 환경과 밀접하게 상호 작용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신속하게 직접적인 환경이 지니는 다양한 특징들의 구별을 배우고, 자신의 행위를 이 환경에 적합하게 변화시키며, 스스로를 동화시킨다.

이와 같은 인간관에 기초하여 피아제의 발생론적 인식론은 그것의 고유한 물음과 방법 및 이론을 지니고 있다. 인간 정신과 사고의 심리적이고 인지적인 구조가 제반 주어진 환경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발생하고 구조화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피아제 이론의 고유한 물음이고, 그것의 방법은 '준-임상적인 인터뷰(semiclinical interview)' 방식, 즉 피험자의 언어적이고 행위적인 문제에 초점이 맞춰있는 비지시적인 연구의 방법이다. 다시 말해 이 방법은 피험자에게 어떠한 주제나 물음을 주고 이에 대한 대답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험자의 자발적인 측면들을 관찰을 통하여 기술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피험자에게서 드러나는 '주관-객관의 균형(Subjekt-Objekt Equilibrium)'이 그 이론의 핵심을 이룬다.[1)]

이 균형이론에 따르면 한 유기체는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에서 오는 다양한 작용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구조적인 체계를 보존하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행위들로 반응을 하는데, 이 유기체의 정신적인 성장과정은 이 반응-행위들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이다. 즉 정신적인 성장과정은 "근본적으로 행위를 통한 환경에 대한 적응과정이고, 생물학적 과정의 확장"[2)]이다. 그래서 지식의 성장은 단순한 학습의 과정이 아니라, 유기체의

1) J. Piaget, *Six Psychological Studies*, Translation from the French by Anita Tenzer, Translation edited by David Elkind, New York, 1968, Editor's Introduction, p. v 참조.

전체적인 행위 과정을 통해 보다 더 정확한 개념을 찾기 위하여 잘못된 개념을 버리거나 또는 이 개념을 보다 높은 수준의, 보다 정확한 개념으로의 변형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아제의 발생론적 인식론은 '행위', 말하자면 '조작(operation)' 또는 '전략(strategy)' 개념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역동적인 이론이라 할 수 있다.

피아제의 이론에 대한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 하에서 이하의 글은 피아제의 인지발달단계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 보다, 오히려 각각의 인지발달단계가 어떻게 다음 단계로 이행하는가라는 물음에 초점을 맞춰서 피아제 이론의 중심 개념인 '구조'와 '발생' 개념을 기술하고, 이 구조와 발생 개념이 어떻게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한 인지발달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어떻게 이행하는가를 알기 위해 그의 '균형' 개념 및 균형이론을 서술하겠다. 그리고 피아제의 이 이론을 케셀링(Th. Kesselring)이 헤겔의 변증법과 관련하여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보기 위해 그의 변증법적 모델을 기술하고, 마지막으로 피아제와 헤겔의 이론을 상호 비교・서술하겠다. 이 비교의 유용성은 피아제의 발생론적 인식론과 헤겔의 변증법 모두가 역동적인 이론이라는 점에 근거하며, 이를 통해 지금까지 비판되어 왔던 헤겔 철학체계의 폐쇄성 논변에 반해 모순 또는 안티노미의 생산성과 변증법적 서술의 개방성 논변이 제시될 것이다.

Ⅱ. 피아제의 구조와 발생 개념

피아제에 의하면 어린아이의 정신적인 성장과정은 4단계로, 말하자면 감각-동력적 단계, 전(前)-조작적 단계, 구체적-조작적 단계, 형식적-조작적 단계로 구분된다.[3] 이러한 단계들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린아이는 점차로

---

2) 김재은,「현대의 사상: 피아제의 사상 - 인식발생론」,『한국논단』12월호, 1992, 205쪽에서 재인용.

3) 이에 대해서는 D. Garz, *Sozialpsychologische Entwicklungstheorien von Mead, Piaget und Kohlberg bis zur Gegenwart*,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2008, S. 67ff. 참조.

자신의 정신의 논리적인 구조를 형성해 나아간다. 이러한 “논리적 구조의 과정적인 구성의 필연성”이라는 의미에서 어린아이는 논리적인 성인과는 다르게 전(前)-논리적인 상태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객관성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탈중심화와 차별화의 필연성”이 “결핍”되어 있기에 자기중심적인 측면에 머물러 있다.[4] 여기서 피아제는 이런 어린아이가 어떻게 전-논리적인 상태에서 논리적인 상태로, 자기중심주의에서 탈중심화와 차별화로 전환하는가를 탐구한다.

이러한 전환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피아제는 핵심적으로 ‘구조’, ‘발생’, ‘균형’ 개념을 사용한다. 우선 피아제는 ‘구조’를 일종의 ‘체계’로 정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체계는 그것의 구성요소들에서 작용하는 법칙들과는 다른 “전체성의 법칙”을 표현한다. 그리고 이 법칙적인 체계는 “비가역적인(irreversible), 따라서 고정적인 형태(Gestalt)” 개념과는 다른 “가역적인(reversible) 의미로서의 체계(System)”로 이해된다.[5] 왜냐하면 이것은 주위 환경과의 관계에서 행위자의 행위과정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역적인 체계가 행위자의 인식적인 구조를 형성한다. 그리고 이 인식구조의 발전과정을 서술하기 위해서는 범주(Kategorie)들과 도식(Schema)들이 필요한데, 이것들은 피아제에 따르자면 제반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유기적인 행위자의 행위과정의 결과물이며 동시에 이 행위과정을 이끈다.

케셀링에 따르면 이 인식적 구조가 주위 환경과의 관계를 구조화할 수 있는 ‘도식들의 체계들 또는 부분체계들’을 형성한다. 이 도식들 각각은 “일반화 가능한 행위 형식들”, 말하자면 “사유형식들”을 가리키며, 그것들 자체로는 “정신적 도구”이고 “인식적 동화기능”을 수행한다. 그것은 원초적으로는 주위 환경과의 유기적인 동화를 지배하는 “단순한 감각적 파악방식”이며 “자동적 행위 형식”이다. 그것은 인식적 발달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차별화, 구별화되고 변화하며, 결국에는 각각의 지적태도를 조종하는 인

4) J. Piaget, “The Thought of the Young Child” in *Six Psychological Studies*, p. 78.
5) J. Piaget, “Genesis and Structure in the Psychology of Intelligence” in *Six Psychological Studies*, p. 149.

식적 도구로서 범주들 또는 개념들로 "내면화된다".[6)]

'발생'은 일종의 '변형'이다. 그것은 어떠한 "절대적인 시초"에 근거한 정의도 허용하지 않으며, 따라서 발생은 "상대적으로 결정된" "변형의 체계"이다.[7)] 피아제는 이 '변형'을 개념화하기 위해서 '가역적 조작'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유기체의 안정적인 균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보상의 과정적인 규칙화"에 의하여 점차적으로 형성된다.[8)] 다시 말해 조작이란 환경과의 관계에서 정신적 주체에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균형을 다시 찾기 위한 행위들이 나타나고 내면화되는데, 이 내면화된 것들이 구조화된 가역적 체계를 의미한다. 이에 따르자면 피아제에게 있어서 발생 개념은 정신의 성장과정에서 가령 "상태 A가 가역적인 조작에 의해서 연속적인 방식으로 상태 B로 전환되고, 이 전환에서 상태 B가 상태 A보다 더 안정적이고 상태 A의 연속적인 확장을 구성"한다면, 이러한 "전환과정을 구성하는 상대적으로 결정된 변형의 체계"를 의미한다.[9)]

케셀링은 이러한 발생, 즉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의 변형을 '반성적인 추상'이라 부른다. 이러한 반성작용을 통해서 이전의 도식들로부터 새로운 도식들이 형성되고, 이 도식들은 그것들 각각의 의미를 '구체적인 행위연관'을 통해서 획득한다. 이 구체적인 행위연관을 통해서 각각의 발달단계에 상응하는 '사유구조'가 발생하는데, 이 발달과정에서 사유구조는 '점점 더 실제적인 행위들로부터 독립적'으로 된다. 그럼에도 사유구조를 통한 인식과정은 '도식들의 규제적인 기능'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관계'한다.[10)] 피아제는 이러한 과정, 즉 도식들을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관계시키는 것을 '투사(projection)'라고 부른다.

그러면 구조와 발생 개념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피아제는 기존의 심리학이 현상의 발생 측면과 구조 측면의 상호관계로부터 출발하

---

6) Th. Kesselring, *Die Produktivitat der Antinomie*: Hegels Dialektik im Licht der genetischen Erkenntnistheorie und der formalen Logik, Suhrkamp Verlag, 1984, S. 168.
7) J. Piaget, "Genesis and Structure in the Psychology of Intelligence", p. 150.
8) J. Piaget, "The Thought of the Young Child", p. 81.
9) J. Piaget, "Genesis and Structure in the Psychology of Intelligence", p. 144.
10) Th. Kesselring, *Die Produktivitat der Antinomie*, S. 168 참조.

지 않았다고 말하며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을 비판한다. 첫 번째 측면은 "구조 없는 발생"[11]으로, 대표적인 이론이 기계론적 진화론과 행동주의 심리학이다. 이 관점에 의하면 유기체는 본능적 충동과 같은 매우 한정된 선천적 구조를 제외하고, 그 밖의 모든 것은 환경적 영향에 의해 계속적으로 형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심리학 이론들은 유기체의 주체적인 측면, 즉 구조를 부수적인 측면으로 전락시킨다. 두 번째 측면은 "발생 없는 구조"[12]로, 대표적인 이론이 구조주의적인 형태(Gestalt)심리학이다. 이 관점에 의하면 유기체의 구조는 영구적이며 발생과는 독립되어 있다고 봄으로서 이 심리학 이론은 발생적인 측면을 간과한다.

이에 반하여 피아제는 구조와 발생 사이의 상호작용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발생은 하나의 구조로부터 뻗어나가 다른 구조에서 완성된다."[13]

이것을 피아제는 'INRC-그룹'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이 INRC-그룹에서 I는 identical, N은 inverse, R은 reciprocal, C는 correlative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I가 'p는 q를 포함한다'일 때, 이것의 N은 'p는 q를 포함하지 않는다', R은 'q는 p를 포함한다' 등등. 이와 같은 가역적 조작에 의하여 INRC-그룹이 형성되고, 이 그룹은 또한 보다 복잡한 상위의 그룹으로 확장되어 나아간다. 이 INRC-그룹의 구조는 약 12세 어린아이에게서 나타나는데, 이 구조는 보다 초보적인 구조에 의해서 야기될 수 있다. 이 초보적인 구조는 이것에 의해서 발생된 전체 구조와 동일한 특성을 갖지는 않지만 부분적인 특성들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것들은 연속적으로 하나의 최종 구조에서 종합된다.[14]

또한 반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

11) J. Piaget, "Genesis and Structure in the Psychology of Intelligence", p. 145.
12) ibid., p. 145.
13) ibid., p. 147.
14) ibid., p. 147 참조.

"모든 구조는 발생을 가진다."[15]

피아제에 따르면 모든 구조는 점차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모든 구조는 그보다 앞선 구조로 부터 발생한 것이고, 어떠한 선천적인 구조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피아제의 인지심리학에서 하나의 구조를 다루는데 있어서 그 구조의 발생은 그보다 초보적인 구조로 유추되며, 이 초보적인 구조는 그것 자체로 절대적인 시초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앞선 발생을 가질 뿐이다. 그러므로 피아제의 발생론적 인식론에서 구조와 발생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며, 상호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다. 예를 들면 논리-수학적 구조는 "주체의 [내면화된] 행위", 즉 가역적 조작에 의해서, 그래서 "대상 자체로부터 야기된 추상화된 산물"이 아니라, 주체와 대상의 상호관계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행위의 질서화로부터 야기된 추상화의 산물"이다.[16]

Ⅲ. 피아제의 균형 개념과 균형이론

피아제는 자신의 발생론적 인식론에서 구조와 발생을 그것들의 밀접한 상호관계에서 파악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방식에서 이 상호관계를 보다 더 적합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만약 이 이해를 위해 어떤 한 모델이 제시될 수 있다면, 이 모델은 정신의 발달심리학적 해명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며, 이 모델 자체는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들에 직면해서 피아제는 '균형(Equilibrium)' 개념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는 이 균형 개념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우선 다음의 3가지 특징을 제시한다.[17]

---

15) ibid., p. 149.

16) J. Piaget, "The Thought of the Young Child", p. 81. 이 논리-수학적인 구조의 발생에 대한 설명은 이하에서 보다 구체적인 예시로서 제시될 것이다. 여기서 우선 말해둘 것은 이 논리-수학적인 구조가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에서 4번째 단계를 형성하는 형식적-조작적 단계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점이다.

17) J. Piaget, "Genesis and Structure in the Psychology of Intelligence", pp. 150-151 참조.

첫째, 균형은 '안정성(stability)'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 안정성은 비가역적이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역적이며 유동적임과 동시에 안정적인 것이다. 예를 들면 하나의 조작적 체계는 행위의 체계, 다시 말해 본질적으로 유동적인 조작적 체계이다. 그러나 이 체계가 일단 구성되면, 그것은 안정적이고 변화하지 않으며, 가역적인 조작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나아간다. 따라서 하나의 균형체계는 결코 "정태적이고 폐쇄된 체계"가 아니라, 오히려 "동태적이고 개방된 체계"이다.[18] 그래서 피아제의 이론에 있어서 균형은 동시에 분석의 모든 수준에서 인식적 변화의 역동성을 의미한다.

둘째, 모든 균형체계는 그것을 변화시키는 '외적인 작용들'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균형은 제반 작용들 또는 힘들 사이에 있는 휴식상태와 같은 평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주체에 외적인 물리적, 사회적인 작용들이 주어졌을 때, 균형은 '주체가 취하는 다양한 방식의 행위들에 의해서 보상되어진 안정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서 '보상(compensation)' 개념은 피아제에 따르자면 균형 개념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근본적인 것이다.

셋째, 균형은 항시 주체의 행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능동적인 상태'를 말한다. 한 주체에게 있어 균형이 크면 클수록, 주체의 보다 많은 행위가 요구된다. 다시 말해 하나의 균형체계 또는 구조는 주체가 자신에 제시되는 모든 외적인 작용들에 대하여 충분히 능동적으로 대체하는 만큼만 균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균형 개념의 기본적인 특징들을 고려하면서 피아제의 균형이론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우선 피아제에게 있어 '조작(operation)' 개념은 항시 가역적이며 그리고 다른 조작들과 체계적인 질서를 형성하고 하나의 통합적인 조작적 그룹으로 형성되는 그런 내재화된 행위로 이해된다. 그러나 모든 행위는 조작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행위는 그것이 가역적으로 작용하면서 하나의 통합적인 구조의 요소로 되어야만 조작적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19] 이러

---

18) J. Piaget, *Six Psychological Studies*, p. xiii.
19) J. Piaget, "The Thought of the Young Child", pp. 81-82 참조.

한 조작적 행위가 피아제의 이론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모든 상징적인 체계들을 변형시키는 외적인 작용들에 반응하며 또한 예측하고, 그 작용들에 대해서 보상 작용하는 것, 즉 안정된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보상은 전(前)-조작적 규칙화로부터 조작적 규칙화로의 전환과정을 거쳐 조작적 메커니즘을 특징으로 하는 완전한 가역성에 의해 성취된다.[20] 예를 들면, 만약 한 행위주체에게 있어서 내적인 요소와 외적인 요소 사이의 근본적인 상호작용이 고려된다면, 모든 조작적 행위는 양면적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한편으로 실재를 그것에 적합한 도식들에 '동화(assimilation)'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도식들을 실재적 상황에 적합하게 '적응(accommodation)'시키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피아제는 모든 조작적 행위는 내재적 요소와 외재적 요소,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동화와 적응 사이의 '균형'을 확보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21]

우리는 전(前)-논리적 또는 논리적 구조보다 더 앞선 어떠한 "순수한 관찰"도 수행할 수 없다. 논리적 구조는 우선 "준-가역적(semireversible)이고 준-평형적(semiequilibriated)이며 부분적으로 보상된(partially compensated) 보다 더 초보적인 구조"로부터 발생된다. 이와 같은 인식적 기능의 발달은 '단계들의 연속'에 의해서 특징져지며, 단지 이 연속의 최종단계에서만 완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인식적 기능의 발달은 무엇보다도 "균형화 및 규칙화의 과정"을 의미한다. 전(前)-조작적 구조와 조작적 구조 사이의 차이는 본질적으로 그 구조 자체에 포함된 '보상' 및 '균형'이 부분적인지 아니며 완전한지에 의존하고, 또한 동화와 적응의 과정에서 구조에 의해 획득된 '가역성의 정도'에 의존한다.[22] 이에 따르자면 인식기능의 발달과 관련된 문제에서 균형이론은 피아제의 발생론적 인식론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인식적 구조의 균형은 '외적인 작용들에 대하여 반응

---

20) J. Piaget, "The Role of the Concept of Equilibrium in Psychological Explication" in *Six Psychological Studies*, p. 102 참조.

21) ibid., p. 103 참조. 이에 대해서는 또한 J. Piaget, *Meine Theorie der geistigen Entwicklung*, herausgegeben von Reinhard Fatke, Beltz Verlag, 2003, S. 53ff. 참조.

22) J. Piaget, "The Role of the Concept of Equilibrium in Psychological Explication", p. 106.

하는 주체의 행위에 의한 보상'으로 정의된다. 이때 외적인 작용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그것들은 보다 하위의 불안정한 균형의 형식에서는 "환경의 실재적이고 현재적인(real and actual) 변형들(modifications)"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변형들에 대해서 주체의 보상적 행위는 조작적 체계가 없이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가능한 방식에서 반응한다. 두 번째로 외적인 작용들은 보다 상위의 조작적 체계, 다시 말해 안정된 균형의 형식에서는 "환경의 가상적인(virtual) 변형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시각의 경우에서 외적인 작용들은 한 체계의 직접적인 조작, 다시 말해 초보적인 의미에서 변형을 표현하는 조작의 형식에 있어서 주체에 의해 표상되고 예기된 것들이다. 이 경우에 주체의 보상적인 행위는 반대적인 의미, 다시 말해 가역적인 체계의 상호적인 조작 또는 반대적인 조작에서 변형을 표상하고 예기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23]

외적인 작용들에 대해 이러한 대응방식에서 보상작용은 외적으로 작용된 변형들의 순수한 표상들에 의해 야기되고, 체계의 어떤 조작에 의해 새로운 순수한 표상들의 구성으로 종결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많은 중간단계들이 존재할 수 있다. 가령 논리-수학적인 구조를 고려한다면, 이 구조는 주체의 보상작용을 통해 어떤 변형그룹, 예를 들면 명제논리의 결합그룹을 위한 가능한 모든 변형의 체계들을 구성할 것이다. 그리고 이 변형들 중에서 어떤 변형은 어떤 외적인 작용에 의해 어떤 하나의 체계의 변형으로서 보일 수 있고, 반대적인 변형은 원래의 변형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조작적 체계는 물리학에서 그것의 대수적 합이 0이 되는 벡터관계에 있는 힘들의 체계와 비교될 수 있다. 그러나 피아제에 따르자면 물리학에서 벡터관계에 있는 힘들은 '정의'에 의한 것이지, '실재적인 것'이 아니며, 단지 물리학자의 마음속에서만 존재하는 힘들이다. 이에 반하여 조작적 체계에 있어서 실질적인 변형은 심리학에 적합한 영역인 '주체의 마음속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이 실질적인 변형은 '주체의 실질적인 조작적 행위'에 상응한다.[24] 그래서 피아제는 이 균형이론이 심리학에서 정신

23) ibid., p. 113.
24) ibid., p. 114 참조.

의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설명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균형이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피아제는 균형이론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3 종류의 모델을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25)]

첫 번째는, 벡터관계에 있는 힘들의 대수적인 합이 0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힘들의 정확한 평형에 의해 균형을 정의하는 모델'이다. 그러나 이 모델은 생물학적 관점에 의해서 쉽게 반박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항상성(Homeostasis)'은 사실상 정확한 평형이 아니라 종종 '과도한 균형상태(overbalanced)'에서도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심리적인 관점에서 '주의집중'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두 번째는 애시비(Ashby)에 의해서 사용된 '개연론적(probablistic) 모델'이다. 이 모델은 적은 보상의 습관화와 보다 더 복잡한 자극의 채택에 의해 제시되는 신경의 균형과정을 모델로 한다. 그러나 피아제는 이러한 모델이 심리학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행위들에 관한 명제들로 재구성'되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는 피아제가 대변하는 '주체의 행위와 외적인 작용들 사이의 보상에 의한 균형의 모델'이다. 이 모델은 주체가 어떻게 균형의 불안정한 상태에서 보다 더 안정적인 상태로, 진정한 균형의 특징인 완전한 보상의 상태에까지 과정적으로 통과하는가를 보여준다.

이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피아제는 두 번째 모델에 조작적인 '전략(strategy)' 개념을 적용한다. 첫째 단계의 전략은 우선 가장 높은 개연성을 가진 조작이다. 두 번째 단계의 전략은 첫 번째 단계의 전략의 결과와 관련하여 가장 높은 개연성을 가진 조작이다. 세 번째 단계의 전략은 두 번째 단계의 전략의 결과와 관련하여 가장 높은 개연성을 가진 조작이다. 이러한 전략의 과정은 무한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전략의 무한한 과정을 동일한 양의 찰흙으로 만들어진 두 모양의 찰흙덩어리의 크기-비교-실험을 통해서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26)] 하나는 공

---

25) ibid., pp. 107-9 참조.

26) J. Piaget, "Genesis and Structure in the Psychology of Intelligence", pp. 154-157 참조. 이 예를 통해서 우리는 피안제의 인지발달이론에서 3번째 단계인 구체적-조작적 단계에서의 조작적 행위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그리고 이 단계가 더 복잡한

모양이며, 다른 하나는 소시지 모양이다. “이 두 가지 것들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많은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어린아이는 첫 번째 단계에서 단지 하나의 차원만을 적용한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것이 더 크기 때문에 또는 더 길기 때문에 이것보다 많다.” 이 발달단계에 있는 대부분의 어린아이는 단지 하나의 차원, 말하자면 ‘길이 차원’에만 집중한다. 이 때 길이는 0.7의 개연성을 가지며, 이에 반해 ‘넓이’는 0.3의 개연성을 가진다. 따라서 이 단계에 있는 대부분의 어린아이는 길이 차원을 선택한다.(균형상태)

그러나 만약 우리가 소시지 모양의 것을 계속 더 가늘게 만들면, 어느 순간에 가서는 어린아이는 두 사물을 감각적으로 대조하면서 자신의 첫 번째 전략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한다.(균형장애) 그리고 그는 이제 길이 차원의 조작을 포기하고, 넓이 차원의 조작적 전략을 사고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것이 더 넓기 때문에 저것보다 더 많다.” 또는 “저것이 더 좁기 때문에 이것이 더 많다.” 그러나 이 두 번째 단계에서도 대부분의 어린아이는 첫 번째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지 하나의 차원, 즉 ‘넓이 차원’에만 집중한다.(균형상태)

세 번째 단계에서 어린아이는 이 양자의 차원, 즉 ‘길이 차원’과 ‘넓이 차원’ 모두를 함께 사고하려고 하나, 처음에는 양자의 차원의 비교에 있어서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모른다. 이것이 더 길기 때문에 더 많아. .... 아니, 이것이 더 얇기 때문에 더 적어. ....” (균형장애)

네 번째 단계에서 어린아이는 점점 변형에 관하여 사고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 어린아이는 이 두 가지 변수가 서로 ‘역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균형상태)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것을 길게 하면 비례적으로 얇아지고, 이것을 넓게 하면 비례적으로 작아진다.” 다르게 말하면 이 어린아이는 ‘보상화의 과정’에 있으며, 점차로 보다 안정적인 균형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처럼 어린아이의 조작적 인지과정은 점차로 발달하며, 이와 함께 이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비교의 구조’가, 다시 말해 전-논리적인 상태에서 논리적인 상태로의 전환이 형성된다. 이 단계

조작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형식적-조작적 단계로 이행하는가를 볼 수 있다.

에 도달하면 어린아이는 이제 하나의 가역적인 체계를 구성하게 되고, 보다 더 탈중심적이고 차별적인 인지단계에 도달한다.

이 비교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균형이 '연속적인 개연성을 가진 과정의 체계'이며, 외적인 변형들에 대한 조작적 전략에서 어린아이가 보상을 획득하고, 균형이 가역성의 체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제시되는 시점에서 필연적으로 결과 되는 그런 과정의 체계라는 것이다. 균형의 단계에서 어린아이는 안정성을 획득하고 더 이상 체계보존에 대하여 거부하지 않으며, 그래서 "2개의 찰흙덩어리는 모양이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양은 같다"고 말한다. 이 구조는 계속되는 보다 더 복잡한 체계로 통합되어 나아간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초시간적인 구조는 시간적인 과정을 통하여 발생하고, 시간적 발생에 있어서 각각의 단계는 증가하는 개연성에 따르며, 이것은 연속의 시간적 질서에 의해 결정된다. 일단 균형화된 구조가 형성되면, 그것은 주체의 마음속에 각인되고, 이것의 필연성은 구조의 완전성의 표시이며, 점차적으로 초시간적인 구조로 된다. 따라서 어떠한 고정적인, 절대적인 구조도 존재하지 않으며, 어떤 한 단계의 구조는 항시 그 이전 단계의 구조로부터 발생되는 것이다.

Ⅳ. 케셀링의 변증법적 모델

케셀링은 헤겔의 변증법을 피아제의 발생론적 인식론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려고 한다. 그에 따르자면 변증법적 방법의 완성을 위해 '절대지나 절대자에 대한 호소'는 근거가 없으며, "변증법적 방법을 해명하기 위한 서술개방성"에 대한 요구는 사실 헤겔의 변증법에서 "악명 높은" "형이상학적 찌꺼기",[27] 말하자면 절대지나 절대자에 근거한 변증법적 체계의 폐쇄성을 제거하여 이 변증법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의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케셀링은 피아제의 발생론적 인식론이 형식논리학의 무모순성의 원리에 의거한다고 하더라도, 이 이론에는 헤겔의 변증법적 모델의 원리가 될

27) Th. Kesselring, *Die Produktivitat der Antinomie*, S. 41, 85 참조.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며, 피아제의 이론을 다음과 같이 변증법적으로 재구성한다.

인간 정신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단계는 두 가지 구분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피아제의 발생론적 인식론에서 '인식적 구조'로 대표되는 "형식영역 또는 상위영역(1)"이며, 이것은 각 단계마다 나타나는 "최고의 인식적 도식"을 말한다. 이 도식은 하위의 도식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 도식들을 규제하고, 주체에게 동화(인지, 이해)되는 자료들의 정신적인 변형의 과정을 지배한다. 다른 하나는 피아제의 이론에서 '외적인 작용들 및 변형들'로 대표되는 "내용영역 또는 하위영역(2)"이며, 이 영역은 상위영역의 도식에 동화되는 자료들의 영역을 형성한다. 상위영역의 도식에 의하여 규제되는 도식들도 이 하위영역에 속하며, 이 도식들은 또한 자신들의 규제적인 방식을 통하여 외적인 세계에 대한 구조들을 형성한다.[28] 이러한 상위영역과 하위영역의 관계에서 각각의 발전단계의 상위영역(1)은 그 단계의 하위영역을 규제하고 지배하는 "정합성(Kohärenz)의 원리"[29]로 간주된다. 이 원리에 의해서 상위영역과 하위영역이 서로 구별되면서도 그것들의 상호관계에서 하나의 안정된 균형적 인식체계를 형성할 때, 이하의 논의를 위해 우리는 이 균형적 인식체계를 우선 단계 I이라 부르고, 이 단계에서 상위영역을 I.1, 하위영역을 I.2라 부른다. 그리고 우리는 이 단계에서의 인식의 형식-도식적인 측면을 1a, 그리고 그것의 내용-자료적인 측면을 1b로 표기한다.

그런데 정신의 발달단계들 각각에서 정신적 주체가 인식적 형식(1)을 인식적 내용(2)으로부터 명확히 분리해 낼 수 없을 때, 형식영역과 내용영역 사이에서 "영역혼합(3)"이 발생한다. 이 영영혼합을 케셀링은 또한 엄격한 의미에서의 모순, 즉 "안티노미"라 부른다.[30] 그에 따르자면 "엄격한 안티

---

28) ebd., S. 169f.

29) ebd., S. 127. 이 원리는 일반적으로 형식논리학의 무모순성의 원리에 근거한다.

30) ebd., S. 170. 헤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개별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의 결합은 혼합이다. [....] 이것은 이 때문에 다양한 측면을 지닌 모순이다."(G. W. F. Hegel, *Enzyklopädie der philosophischen Wissenschaften* III, Suhrkamp Verlag, Bd. 10, § 421, S. 210)

노미의 특징은 부정되는 것이 단지 어떤 하나의 부차적인 속성이 아니라, 바로 자기관계[자기 자신]"라는 점에 있으며, 이것이 "엄격한 안티노미의 발생을 위한 근본조건"이다.[31] 말하자면 인식적 내용과 명확히 구별되지 못한 인식적 형식은 정신적 주체에 의해 그 자체 원리적인 특징이 부정되고 주제화될 것이며, 이 주제화된 형식은 정신적 주체의 반성대상으로서 그 자체로 내용, 말하자면 내용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내용과 형식의 절대적인 관계, 양자의 상호전환" 또는 "형식과 내용의 절대적인 상호전환",[32] 즉 영역혼합이 발생한다. 이것은 정신의 발달단계들 각각에서 형식영역이 최고의 인식적 도식, 즉 "자기조절의 최종 심급"으로서 내용영역과 구별되고, 그래서 자기 자신과 관계하지만, 동시에 "외부 세계로 향해 있는", 따라서 "자기 자신과 관계하지 않는" 내용영역의 도식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형식영역은 영역혼합에서 '자기관계'하지만 동시에 '자기관계의 부정'을 의미한다. "그것은 자기와 관계하지 않는 한에서 자기와 관계하고 그리고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이 때문에 영역혼합에서는 "엄격한 안티노미"가 발생한다.[33]

이러한 영역혼합으로서의 안티노미는 각각의 균형적 인식체계에서 또는 각각의 발달단계에서 '혼란'을 야기하는데, 이 안티노미적인 혼란은 말하자면 "상위영역과 하위영역 사이에서 하나의 새로운 질서체계를 구조화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 결과 새로운 단계가 발생함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다. 이 새로운 질서체계를 구조화하기 위해서는 피아제의 발생론적 인식론과 관련해서 위에서 언급된 조작적 전략과 보상화 과정에 상응하는 "반성과 객관화의 과정"이 요구된다. 이 반성과 객관화의 과정이 이전의 단계의 결과로서 발생된 영역혼합으로부터 새로운 상위영역을 하위영역과 구별해내고 동시에 새로운 상위영역에 의해 지배되는 새로운 질서체계를 구조화

---

31) Th. Kesselring, *Die Produktivitat der Antinomie*, S. 105.

32) G. W. F. Hegel, *Enzyklopädie der philosophischen Wissenschaften* I, Suhrkamp Verlag, Bd. 8, § 133 Anm., S. 265 u. § 151, S. 295. 이 표현들은 헤겔철학에서 한편으로 '부정적인 통일'을 산출하는 생산적인 특징을 가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엄격한 모순'의 발생을 근거 짓는다.

33) Th. Kesselring, *Die Produktivitat der Antinomie*, S. 149.

하며, 그 결과 새로운 단계, 말하자면 단계 II를 발생시킬 것이다. 이렇게 발생한 상위영역과 하위영역의 차별화를 통해서 하나의 새로운 상위영역이 형성되는데,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이중적인 차이관계"를 통해 형성된다. 하나는 '상위영역(1)과 하위영역(2) 사이의 차이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하위영역의 종속영역들 사이의 차이관계', 즉 이전 단계에서 상위영역이었지만 지금은 주제화된 또는 객관화된 형식(1a)과 이전 단계의 내용영역(1b) 사이의 차이관계이다.[34] 이러한 반성과 객관화의 과정 및 이중적인 차이관계는 각각의 인식발달단계에서 발생하며, 그 결과 또 하나의 새로운 상위영역과 하위영역의 구분이 형성되고, 이와 더불어 하나의 새로운 인식단계, 말하자면 단계 III이 형성된다. "이 단계의 상위영역(1)은 이전 단계의 상위영역의 발달 및 확장을 서술하며, 그것의 하위영역(2)은 이전 단계의 상위영역과 하위영역의 객관화된 관계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새로운 단계의 [하위영역의] 종속영역들, 즉 2a와 2b를 형성한다."[35] 이처럼 새로운 단계의 하위영역은 "선행하는 모든 단계가 퇴적되는 영역"[36]이다.

이러한 발달과정에서 발생하는 단계전환을 보다 심층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케셀링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각각의 단계전환과 더불어 이전 단계의 도식들은 객관화된다. 그래서 행위도식들의 의식화됨은 개념화의 과정이다."[37] 이 개념적인 재구성과 행위도식들의 외적 대상들에로의 투사(projektion)는 이 행위도식들이 의식화될 때 드러나는 상호 연관된 두 측면을 제시하는데, 이 두 측면은 변증법적 모델의 형성에 있어서 '구성적인' 측면을 지닌다. 이것은 다음과 같다.

1. 인식적 구조들은 그것들 자체가 결코 객관화될 수 없는, 분석될 수 없는 (그러므로 직접적인) 상태에 있을 때 도식들의 위상을 갖는다.[각각의 단계의 상위영역(1)]
2. 객관화된, 반성된 인식적 도식들은 개념들 또는 개념들과 유사한 구성물

34) ebd., S. 170. 예를 들면 "감각-동력적 구조들[형식]은 다음 단계의 내재화된 행위도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용을 형성한다."(ebd., S. 126)
35) ebd., S. 170.
36) ebd., S. 117.
37) ebd., S. 170f.

들의 위상을 갖는다.[다음 단계의 종속영역(2a)][38]

하나의 도식은 주어진 단계의 상위영역(1)을 형성하고, 이에 상응하는 개념, 즉 이 도식이 주제화된 또는 객관화된 것은 다음 단계의 종속영역(2a)을 구성한다. 즉 하나의 도식은 한 단계에서는 상위영역(1)임과 동시에 그것이 객관화 또는 개념화되었을 때는 새로운 단계의 종속영역(2a)이 된다는 이중적인 특성을 지닌다. 그리고 각각의 단계 내에서 상위영역(1)은 결코 객관화 또는 주제화될 수 없는 영역을 의미하며, 종속영역(2a)은 새로운 단계에서 주제화된 또는 객관화된 영역을 말한다. 따라서 상위영역(1)은 각각의 인식발달단계에서 상이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서 케셀링은 다음과 같은 '하나의 인식적 원리'를 제시한다.

'새로운 종속영역 2a와 2b의 질서화는 하나의 인식적인 원리에 의해 이끌어지는데, 이 원리는 하나의 도식이 바로 이 도식에 동화되어야 하는 그런 내용의 부분요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39]

이 원리는 영역혼합 및 안티노미의 발생을 회피하기 위한 인식적 원리이며, 반대로 하나의 도식(상위영역)이 그것에 동화되는 내용영역(하위영역)으로 투사되었을 때, 영역혼합, 즉 안티노미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한 단계에서 상위영역을 형성하는 도식은 그것이 투사되는 하위영역과 구별되기에, 그것은 그 자체로 결코 객관화될 수 없고, 분석될 수 없으며, 그것의 도움으로 파악되는 것의 부분요소가 될 수 없다.(자기관계) 그러나 이 도식이 객관화되었을 때, 그것은 개념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이 객관화된 도식으로서의 "개념은 자기 자신을 파악할 수 없고, 자기 자신의 개념일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외부 세계로 향해 있다. 이것은 도식이 지니는 자기관계의 부정을 의미한다. 도식의 이러한 이중적 특성이 혼합되었을 때, 안티노미가 발생한다. 그러나 저 인식적 원리는 동시에 안티노미의 발생을 회피하는 원리로서 한편으로 단계구분을 통해 앞선 단계의 도식(상위

38) ebd., S. 171.
39) ebd., S. 171. 피아제의 말을 빌리자면 전체성의 법칙은 그것의 부분들의 법칙과는 다르다.

영역)을 새로운 단계의 내용(하위영역)과 연관시키며, 다른 한편 자신의 측면에서 "새로운 단계의 도식(상위영역)을 구성한다"는 의미를 지닌다.[40)]

그러면 이 새로운 단계의 상위영역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각각의 인식발달단계에서 상위영역의 도식이 명확히 내용영역으로부터 구분될 수 없을 때, 안티노미가 발생한다. 한 단계에서 이 단계에 속하는 상위영역과 하위영역 사이의 관계는 이 단계 내에서 주제화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 상위영역은 그 자체로 객관화되거나 분석될 수 없고, 그리고 이 상위영역이 객관화된다면 안티노미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케셀링은 부정이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상위영역(1)과 하위영역(2)의 관계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하위영역 내의 종속영역들[2a와 2b] 사이의 관계를 특징짓는 설명적 매개항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이러한 관계는 분열(Entzweiung)이고, 부정$_{(1)}$이다. 마찬가지로 상위영역(1)은 하위영역(2)에 대해 분리(Dissoziation)의 관계에 있고, 그러므로 다시 부정$_{(2)}$의 관계에 있다. '부정의 부정' 개념은 부정$_{(2)}$과 부정$_{(1)}$의 구별에 대한 표현이다." 그러나 "이 구별은 [영역혼합에서는] 아직 명확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될 수 없다. 이 두 개의 상이한 분리들(부정$_{(1)}$과 부정$_{(2)}$)은 그러므로 서로 구별될 수 없고, 이 구별불가능성이 엄격한 논리적인 안티노미를 초래한다."[41)]

여기에서 분명히 말해 둘 점은 케셀링조차도 헤겔의 존재론적이고 방법론적인 개념인 '부정의 부정', 엄격히 말해 '자기관계하는 부정성'을 명확히 정식화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케셀링의 변증법적 모델은 헤겔 변증법의 '자기관계하는 부정성' 개념을 외재적인 방식, 즉 피아제의 경험과학적 가설과 형식논리학의 한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설득적이다. 그런데 그는 이 개념을 에피메니데스와 에우불리데스의 거짓말쟁이의 역설과 그리고 자연언어와 집합이론에서의 모순 및 모순해결 문제와 관련한 타르스키의 형식적 언어체계의 구성, 다시 말해 대상언어, 메타언어, 메타-메타언어에로의 확장의 정식화와 러셀의 집합론의 유형론적 확장, 다시 말해 원소집합, 모집합, 모집합의 모집합에로의 확장의 정식화에

40) ebd., S. 172.
41) ebd., S. 150.

의거해서[42] 여전히 불충분한 방식에서, 말하자면 '부정의 자기관계성'을 부정하는 방식에서 이해한다. 예를 들면 '크레타인이 말했다. 모든 그레타인은 거짓말쟁이라고' 또는 '한 남자가 말했다.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에서 역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조건은 첫째, 주문장의 주어와 부문장의 주어가 '같은 부류에 속한다' 또는 '같다'는 것[자기관계]과 둘째, 부문장의 술어가 부문장의 주어뿐만 아니라 주문장의 주어에도 '부정적으로' 관계한다는 점이다.[부정적인 자기관계] 이 역설을 해결하는 방식에서 대표적인 것이 주문장의 영역과 부문장의 영역을 구별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부문장의 영역은 대상언어의 측면에, 주문장의 영역은 메타언어의 측면에 놓고, 양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다. 마찬가지 방식에서 집합들의 포함관계에서 하나는 원소집합으로, 다른 하나는 모집합으로 놓고 양자를 구분하는 것이다.[43] 그리고 이 예들에서 부문장, 대상언어, 원소집합에 대해서 주문장, 메타언어, 모집합은 케셀링의 모델에 따르자면 이 단계에서 상위영역을 형성하는 도식을 의미하며, 그것 자체로는 결코 객관화될 수 없고, 분석될 수 없으며, 그것의 도움으로 파악되는 것의 부분요소가 될 수 없는 영역을 형성한다. 그런데 케셀링과 그가 의거하고 있는 이 이론들은 역설과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헤겔의 '자기관계하는 부정성' 개념이 갖는 역동적인 통일구조, 즉 '자기관계'이면서 동시에 '자기관계의 부정'이라는 통일구조에서 자기관계와 자기관계의 부정의 '동시성'을, 다시 말해 주제화되고 있는 영역들 각각이 그 자체로 자기관계이면서 동시에 자기관계의 부정이라는 사실, 즉 부정의 자기관계성을 부정하고, 무모순성의 원리에 근거해서 양자의 영역을 구분할 뿐이다.[44] 자기관계의 영역과 자기관계의 부정의 영역이 구분되지 않는다면, 케셀링의 모델에 따르자면 영역혼합, 즉 엄격한 논리적인 안티노미가 발생한다.

---

42) ebd., S. 98ff. 참조.

43) 이에 대해서는 이하 본문 참조.

44)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특히 조종화, 「헤겔 모순개념의 객관성과 구조」, 『헤겔연구』 23, 한국헤겔학회, 용의 숲, 2008, 315쪽 이하, D. Wandschneider, *Grundzüge einer Theorie der Dialektik*: Rekonstruktion und Revision dialektischer Kategorienentwicklung in Hegels *Wissenschaft der Logik*, Klett-Cotta, Stuttgart, 1995, S. 30ff. 참조.

이러한 안티노미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부정의 부정'인 '부정$_{(2)}$과 부정$_{(1)}$의 구별'을 위해서 상위영역과 하위영역 사이의 관계는 새롭게 발생하는 단계에서 이 영역들이 객관화된 종속영역 2a와 2b를 주제화하는 개념들을 가지고 파악하는 방식 이외의 다른 방식은 없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상위영역과 하위영역이 분리되고, 양자의 관계는 새로운 단계의 종속영역 2a와 2b 사이의 관계로서 객관화된다. 이러한 발달과정은 차별화 또는 구분화의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객관화된 종속영역 2a와 2b 그리고 이 양자의 관계로 이루어진 하위영역(3b)과 이 하위영역을 규제하고 지배하는 새로운 상위영역(3a)이 나타나며, 새로운 단계, 말하자면 단계 III이 구조화된다. 이러한 과정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증법적 과정은 '논리적인 무한진행 문제'로 이해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한 단계의 반성적인 객관화는 다음 단계에서 동형적이지 않고, 오히려 창조적"이기 때문이다. "매일보와 더불어 하나의 구조적이고 관점적인 확장과 변화가 주어진다. 왜냐하면 항시 새로운 관점과 더불어 하나의 새로운 구별의 차원(말하자면 상위영역(1)과 하위영역(2)의 비대칭적인 관계)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전의 모든 구별의 차원들이 [새로운 단계의 하위영역(2)에서] 취해지는데, 그러나 항시 동시에 범주적으로 전환되면서 취해지기 때문이다."[45] 말하자면 단계 I에서 상위영역이 1a이고 하위영역이 1b라면, 단계 II에서 상위영역은 2a이고 하위영역은 2b=1a+1b이며, 단계 III에서 상위영역은 3a이고 하위영역은 3b=2a+2b(=1a+1b)로 파악된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단계 II에서 하위영역(II.2)은 시각, 청각 등을 통한 대상들의 다양한 현상방식들인 종속영역 1b와 이 방식들을 주제화하는 지의 형식들인 종속영역 1a를 자신의 내용(2b=1a+1b)으

---

45) Th. Kesselring, *Die Produktivitat der Antinomie*, S. 137. 이것은 영역혼합으로서의 안티노미가 인지발달의 단계이행에서 생산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피아제의 인지발달단계들 각각은 바로 전(前)단계로부터 출현한다. 그리고 이 단계전환에서 안티노미의 출현은 자연언어와 집합이론에서의 안티노미의 출현이 타르스키의 형식적 언어체계의 구성과 러셀의 집합론의 유형 이론적 정식화를 결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을 정식화한다. 여기서 케셀링이 주목하는 것은 피아제에게 있어 단계이행이 형식적 언어체계의 구성과 집합론의 유형론적 확대 구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로 가지며, 상위영역(II.1)은 이 하위영역(II.2)을 규제하고 지배하며, 이것의 종속영역들(1a와 1b)의 구별 및 상호관계를 주제화할 수 있는 원칙(2a)으로서 이해된다. 여기서 영역혼합은 이 원칙으로서의 상위영역(II.1)이 그 자체로 객관화되고 주제화되어 하위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점에 있다. 이것은 피아제의 보고에 따르자면 어린아이는 이 발달단계에서 '집합들의 포함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모집합과 원소집합 모두를 동일한 수준의 집합으로 이해하기에 '모집합과 그것의 원소집합을 구분할 수 없다'는 점에 근거해서 이해될 수 있다. 그래서 안티노미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발생한다. 즉 "원칙에 의해 원칙화된 속성이 그 자체로 원칙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시되었을 때, 영역혼합, 즉 안티노미가 발생한다.[46] 이 안티노미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는 상위영역인 모집합(II.1)과 하위영역인 원소집합(II.2)의 관계를 주제화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양자 모두를 원소집합으로 포함할 수 있는 모집합의 모집합(단계 III)을 구성한다. 여기에서 주제화된 모집합(II.1)은 '보편개념'으로, 다시 말해 단계 III의 하위영역(3b)을 구성하는 종속영역 2a로 되고, 하위영역인 원소집합(II.2)은 '개별개념'으로, 다시 말해 단계 III의 하위영역을 구성하는 종속영역 2b로 된다. 그리고 이 개념들을 주제화하는 새로운 도식(모집합의 모집합)은 그 자체로는 주제화될 수 없는 상위영역(III.1)을 구성하며 원리로서 기능하고, 그것은 하위영역(III.2)을 규제하고 지배하며, 그것의 종속영역 2a와 2b의 구별 및 상호관계를 구조화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위영역(III.1)과 하위영역(III.2) 사이에서 다시 영역혼합이 발생할 때, 새로운 안티노미의 발생조건이 다시 정립된다.

이 변증법적 발달과정을 케셀링은 피아제의 발생론적 인식론과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식화한다. "도식들이 각각의 단계에서 스스로를 함께 객관화한다는 사실은 인식적 발달의 원동력으로서 작용한다. 이러한 자기 객관화가 모순들, 이와 함께 균형장애들로 이끌기 때문에, 이 인식적 장치

46) Urs Richli, "Kritische Bemerkungen zu Thomas Kesselrings Rekonstruktion der Hegelschen Dialektik im Lichte der genetischen Erkenntnistheorie und der formalen Logik" in *Philosophisches Jahrbuch* 95, S. 133.

는 정합성 추구(Kohärenzbestreben)에 근거해서 항시 균형장애들이 배제될 때까지 스스로를 차이화하고 확대해 나아간다.”[47] 말하자면 단계 I에서 상위영역(1a)과 하위영역(1b)은 균형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상위영역이 하위영역으로 투사될 때, 영역혼합, 즉 안티노미와 균형장애가 발생한다. 이 안티노미를 해소하고 균형장애를 배제하기 위해서 상위영역과 하위영역이 새롭게 구별되고, 새로운 균형이 성취되는데, 이것이 단계 II를 형성한다. 이 단계 II의 하위영역(2b)에는 단계 I의 상위영역(1a)과 하위영역(1b)이 속하며, 이 종속영역들은 하위영역과 구별을 통해서 새롭게 발생된 상위영역(2a)에 의해 구별되고 규제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전 단계에서 발생했던 균형장애는 배제되고 새로운 균형상태가 회복되고 구조화된다. 그리고 이 균형상태, 안티노미 및 균형장애 그리고 균형상태의 회복과정은 계속 발전적으로 수행될 것이며, 이 과정은 점차로 확대되고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피아제의 발생론적 인식론은 ‘갈등-균형-모델’이라 불린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케셀링이 상위영역과 하위영역의 통일로서 안정적인 ‘균형상태’ 및 ‘균형상태의 회복’을 피아제의 발생론적 인식론과 관련해서 단지 “자동적인 체계성” 및 “자동적인 체계성으로의 복귀”로서만 이해한다는 점이다.[48]

지금까지의 서술을 토대로 해서 케셀링이 피아제의 발생론적 인식론에 근거한 헤겔의 변증법적 모델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단계 I	단계 II	단계 III
		상위영역(III.1=3a)
상위영역(I.1)=지의 형식(1a) ↗	상위영역(II.1=2a) ↗ ⇅통일/혼합(II.2)	⇅통일/혼합(III.3) ⇉ 확대・심화과정 → 하위영역[III.2=3b=2a+2b(=1a+1b)]
⇅통일/혼합(I.3)* →	하위영역(II.2=2b=1a+1b)	
하위영역(I.2)=지의 내용(1b)		

* 상위영역과 하위영역의 통일은 한편으로 양자의 균형상태를 유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영역혼합, 즉 안티노미와 균형장애를 발생시킨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상위영역과 하위영역의 차별화를 통해 새로운 단계가 구성된다.

---

47) Th. Kesselring, *Die Produktivitat der Antinomie*, S. 172.

48) ebd., S. 149.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 글의 5장 마지막 부분을 참조하시오.

Ⅴ. 피아제의 발생론적 인식론과 헤겔의 변증법의 동일성과 상이성

헤겔의 변증법과 피아제의 발생론적 인식론은 다양한 측면들에서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또한 동일한 측면들을 지닌다. 헤겔은 자신의 저서『정신현상학』에서 '현상하는 의식'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현상하고 또한 동시에 자기 내로 복귀하는지를 사물들, 다른 개인들, 세계, 인륜적 제도들 등등, 말하자면 의식의 제반 타자들과의 관계에서 고찰하고, 이 의식의 경험을 서술한다. 여기에서 현상하는 의식이 자신의 타자와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현상하고 그리고 자기 내로 복귀해서 하나의 원환을 형성할 때, 이를 헤겔은 의식의 "형태"라고 부른다. 그리고 "의식 경험의 학문"[49]으로서의『정신현상학』은 이러한 '의식의 형태들의 종합적이고 중층적인 통일체계'로 이해될 수 있다. 이 통일체계의 구성에서 헤겔은 "의식 자체의 전환"과 그리고 이 과정을 한편으로는 "관망(Zusehen)"해야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개입해야 하는 그런 "우리[현상학자/철학자]의 부가적인 행위(Zutat)"가 필요하다고 말한다.[50]

이와 유사하게 피아제의 발생론적 인식론은 발달심리학자의 '외적인 조망'으로부터 의식의 발달을 고찰한다. 이 의식의 발달과정을 피아제는 '주관-객관의 균형모델' 또는 '갈등-균형-이론'으로 설명한다. 그런데 이 이론에서는 "발달과정에서 관찰되는 주체의 인식적 능력을 넘어선 개념체계에의 호소"가 "불가피"하며, 이 때문에 피아제에게는 "한 의식의 발달단계의 구조들 또는 형태들의 개념화는 이 발달단계의 현실적인 구조들에 어느 정도 상응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이 제시된다. 이에 대해 피아제는 균형과 투사, 균형장애 그리고 균형회복의 계속적인 과정을 구조화는 갈등-균형-이론을 통해서 대답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는 헤겔과 마찬가지로 또한 그가 발달과정에 있는 "주체 자체가 보는 것과는 다른 또는 더 많은 것을

---

49) G. W. F. Hegel, *Phänomenologie des Geistes*, Suhrkamp Verlag, Bd. 3, S. 80.
50) ebd., S. 79.

본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래서 그는 "발달에 제약된 어린아이의 인식적 전망의 전환은 이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지각될 수 없다"고 믿었다. 따라서 그는 이 전환을 설명하고, 이 지각될 수 없음을 인식도구(형식/도식들)의 인식대상에의 투사의 메커니즘에 따라 탐구하는 것은 바로 '발달심리학자'라는 점을 인정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케셀링은 이 발달심리학자는 "일종의 해석학적 순환"에 놓이게 된다고 말한다.[51)]

또한 헤겔이 『정신현상학』에서 의식의 형태들과 이 형태들의 상이한 발달단계들을 구성하듯이, 피아제도 의식의 발달이 상이한 여러 단계들로 구분된다고 믿는다. 이러한 상이한 발달단계들에서 각각의 단계는 이전 단계의 인식의 형식/도식들과 범주들에 대한 반성 또는 조작을 통하여 다음 단계로 이행한다. 헤겔은 이 이행을 '의식 자체의 전환'으로, 피아제는 위에서 설명했듯이 '행위도식들의 의식화됨'과 '이전 단계의 가장 높은 개연성의 조작에 대한 전략의 변화'로 설명한다. 이러한 단계의 전환과정에서 앞선 단계의 형식들(상위영역(1))은 후속 단계의 내용들(하위영역(2))로 객관화되고 반성되는데, 이 반성은 헤겔에 따르자면 "분열(Entzweiung)의 감정"에, 피아제에 따르자면 투사에 의한 영역혼합의 결과인 "장애의 발생"에 상응한다.[52)] 그러나 저 이행은 동시에 새로운 통일 또는 상위영역과 하위영역의 차별화를 통한 새로운 균형을 창출한다. 이와 같은 형식과 내용의 상호전환 또는 장애의 발생과 극복과정을 통해서 의식은 점점 더 풍부하게 되고 심화된다. 그리고 이러한 반성 또는 의식화됨을 통해서, 비록 완전히 성취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인식의 형식/도식들과 범주들 또는 의식의 행위 및 행위규칙들이 구조화된다.

이러한 단계의 전환 및 구조화는 헤겔에서뿐만 아니라 피아제에게 있어서도 인식하는 주체, 말하자면 현상하는 의식 또는 어린아이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케셀링에 따르자면 저 단계의 전환과 구조화에 대해서 헤겔뿐만 아니라 피아제는 "이론적으로 명확한 해명"을 주지 못했다.

---

51) Th. Kesselring, *Die Produktivitat der Antinomie*, S. 95.

52) ebd., S. 94. 헤겔은 자신의 저서 『차이논문』에서 "분열은 철학의 필요의 원천이다"라고 말한다.(G. W. F. Hegel, "Differenz des Fichteschen und Schellingschen Systems der Philosophie", Suhrkamp Verlag, Bd. 2, S. 20)

오히려 이것은 단지 "더 높은 관점", 말하자면 '현상학자나 발달심리학자의 관점'에 의해서만 성취된다. 다시 말해 이 관점의 소유자들이 단계의 전환 및 구조화를 '의식의 전환'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이 의식의 전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식의 발달과정은 헤겔과 피아제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나선형 또는 원환들의 원환"으로 묘사된다.[53] 이것을 케셀링은 상위영역(I.1) → 하위영역(I.2) → 통일과 영역혼합(I.3) → 상위영역(II.1) → 하위영역(II.2) → 통일과 영역혼합(II.3) 등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부정 또는 투사와 그리고 이와 함께 발생하는 안티노미와 이것의 해소를 통해 심화・확대되는 나선형 모양의 발달과정으로 모형화한다.[54]

이러한 나선형의 발달모델에서 각각의 발달단계에서 "주체의 정신적 발달의 본성에 대한 몰이해"는 주체가 각각의 단계의 전환에 따라 이전의 세계상을 자신의 시야로부터 배제하는 것과 관련된다. 헤겔에 따르자면 한 의식의 형태에서 그것의 진리로 나타난 "즉자저인 것의 의식에-대한-존재(das Für-es-Sein des Ansichs)"는 다시 하나의 새로운 "즉자적인 것(Ansich)"과 관련된다.[55] 피아제는 이것을 '투사(Projection)의 메커니즘'을 가지고서 설명한다. 즉 발달과정에 있는 주체는 그의 "인식적 도구(das Für-es-Sein)"를 "대상(das Ansich)"에 투사한다. 이와 함께 영역혼합이 발생하고 현 단계의 형식/도식들로는 설명될 수 없는 장애가 발생한다.[56] 헤겔은 이

---

53) Th. Kesselring, *Die Produktivitat der Antinomie*, S. 94. 이와 마찬가지로 헤겔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학문은 자기 내 완결된 원환을 서술하고, 이 원환의 시원, 단순한 근거에로 매개는 끝을 다시 삼켜버린다. 여기에서 이 원환은 원환들의 원환이다. 왜냐하면 각각의 개별적인 부분은 방법에 의해 고무된 것으로서 자기 내 반성이고, 이 자기 내 반성은, 이것이 시원에로 복귀할 때, 동시에 새로운 부분의 시원이다."(G. W. F. Hegel, *Wissenschaft der Logik* II, Suhrkamp Verlag, Bd. 6, S. 571f.)

54) Th. Kesselring, *Die Produktivitat der Antinomie*, S. 282 그림 5 참조. 여기에서 '자동적인 유기적 체계'로서의 의식적-행위적 주체에서 '부정'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1) 부정은 자동적(직접적)으로 영유되는 행위과정을 중단시켜 위기를 유발한다. 그러나 2) 이러한 기대되지 않은 방해나 장애가 동시에 사고 및 학습과정을 유발시키기에 부정은 또한 자기실현의 전제를 마련한다. 그리고 3) 이러한 혼란의 원천을 새로운 인식적, 실천적 도식의 형성을 통해 유기적 체계 속으로 통합시키는 것도 부정의 역할이다.(ebd., S. 145.)

55) G. W. F. Hegel, *Phänomenologie des Geistes*, S. 79.

56) Th. Kesselring, *Die Produktivitat der Antinomie*, S. 94f.

러한 인식적 행위를 '외적인 반성' 개념을 가지고서 기술한다. 헤겔의 반성 개념은 그 자신이 "모든 활동성과 자기운동의 규정된 근원적인 근거"로서의 "반성의 본질적인 본성" 또는 "총체적인 반성"[57]이라고 부르는 "자기 내로의 반성과 타자에로의 반성의 내재적인 반성"[58]이라는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반성의 총체적인 구조는 헤겔에게 있어서 우선 정립적 반성, 외적인 반성 그리고 규정적 반성에 의해서 구조화되는데,[59] 여기에서 외적인 반성은 단지 '타자에로의 반성'에 상응하며, 그 결과 직접적인 대상, 즉 즉자적인 것을 전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헤겔의 반성 개념에는 피아제의 '반성적 추상'이라는 개념이,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상응한다. 이 반성적 추상은 '투사'와 '투사의 철회'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아제에게 있어 투사란 "상위영역의 도식이 대상화되는 것"을 말하며, 그 결과 "사유형식(개념)과 객관적인 소여성들 사이의 비구별"이 발생한다. 그러면 피아제의 반성적 추상은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도식은 우선 투사와 투사의 철회 과정을 통해서 의식된다는 사실이 분명해 진다. 투사-과정은 선입견의 형성[자기중심주의]에 상응하고, 투사의 철회는 선입견의 배제[탈중심화]에 상응한다."[60] 이러한 반성적 추상의 과장은 각각의 발전단계에서 "지적인 관계체계의 객관화 또는 탈중심화"를 이끌어내며, 반성적 주체를 "지적인 편견(개인들에게는 자아중심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중심주의)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61] 이에 따르자면 헤겔의 반성과 피아제의 반성적 추상은 인지발달과정에서 '구성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헤겔의 변증법에서와 마찬가지로 피아제의 발

---

57) G. W. F. Hegel, *Wissenschaft der Logik* II, S. 47, 278. 헤겔의 반성 개념에 대해서는 조종화, 「헤겔철학에서 반성과 형이상학」, 『헤겔연구』27, 한국헤겔학회, 용의 숲, 2010 참조.

58) W. Flach, *Negation und Andersheit*, Ernst Reinhardt Verlag München u, Basel, 1959, 73쪽.

59) G. W. F. Hegel, *Wissenschaft der Logik* II, S. 24ff. 참조.

60) Th. Kesselring, *Die Produktivitat der Antinomie*, S. 122.

61) ebd., S. 95. 피아제는 자신의 논문 "The Thought of the Young Child", p. 78 에서 어린아이가 객관성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탈집중화와 차별화의 결핍으로 자기중심적이라 주장한다.

생론적 인식론에서 발달과정은 "전진적임과 동시에 후진적인 요소"를 자체 내에 갖는다.[62] 즉 발달은 동시에 퇴보와 관련되어 있다. "발달은 후진적임과 동시에 전진적인 과정, 그리고 동시에 이전 단계의 관점의 새로운 형식화를 요구하는 과정이다."[63]

이처럼 피아제의 발생론적 인식론이 헤겔의 변증법과 유사점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양자의 이론은 또한 다른 측면들을 가지고 있다. 우선 헤겔 변증법의 방법이 '사변적'이고 '절대지'를 상정하거나 '절대적인 것'에 호소하는 측면이 있는데 반해, 피아제의 발생론적 인식론의 방법은 대부분이 '경험적'이다. 그의 연구방법은 준-임상적인 인터뷰 방식, 즉 발달심리학자가 피험자의 자발적인 측면들을 관찰을 통하여 기술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피아제의 발생론적 인식론에서 모든 발달단계들 각각은 항시 조작적 전략에 근거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하여 다음 단계로 이행한다. 각각의 발달단계는 하나의 패러다임을 갖는데, 이 패러다임에서 상위영역의 정합성의 원리에 따라 상응하는 인식적 구조들이 발생하고 구조화되며 개념화된다. 그리고 이 구조들에 상응해서 "이론적인 관계체계"가 형성되며, 그 결과 상위영역과 하위영역 사이에서 하나의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질서체계가 구축된다. 그런데 이 질서체계가 비록 "안정적"이고 "무모순적"이며, "논리적인 추론을 이끌어 내는데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이 질서체계 자체는 결코 "절대성"이라는 특징을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항시 상응하는 인식적 구조들의 투사를 통해서 영역혼합 및 안티노미 또는 균형장애를 겪게 되고 다음 단계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64]

더 나아가 헤겔의 변증법이 반성의 본질적인 구조, 즉 타자에로의 반성과 자기 내로의 반성 사이의 내재적인 반성을, 다시 말해 양자의 반성의 내재적이고 필연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이를 통해서 주체, 개념, 절대적인 것 등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반해서, 피아제의 발생론적 인식론은 투사와 투사의 철회 사이의 내재적이고 필연적인 관계를 천착하지는 않는다. 피아제의

62) Th. Kesselring, *Die Produktivitat der Antinomie*, S. 95.
63) ebd., S. 280.
64) ebd., S. 96.

이론에서 이 관계에 대한 천착은 정신적인 주체의 조작적 전략에 의해 대체된다. 오히려 이 두 이론 사이의 유사성은 정신의 발달이 주어진 모든 상황과의 관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 있다. 피아제는 인식구조의 발달에 있어서의 합법칙성을 "자동규제적인 과정들"로부터 이끌어낸다. 다시 말해 "개체의 유기체적인 발달(Phänotyps)이 발생적 프로그램(Genotyps 또는 Genom)과 (우연적인) 환경(Umwelt) 사이의 상호관계로부터 이해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아제는 인식발달을 지성의 구조들(논리적-수학적인 구조들)과 외적인 경험(실험적인 학문들을 포함) 사이의 상호관계에서 찾는다. 발생적 프로그램, 말하자면 지성의 구조들이 이 상호관계를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이 상호관계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케셀링이 보기에 헤겔의 변증법에 비해 피아제의 발생론적 인식론이 지니는 특징적인 점은 항시 "우연적인 요소들의 영향에 열려져 있으며", 이런 한에서 결코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65]

그런데 헤겔의 변증법이 피아제의 발생론적 인식론과 구별되는 가장 주목할 점은 "헤겔의 변증법적인 발달과정에서 모순이 최고의 중요성을 가지는데 반해, 피아제는 모순의 이러한 기능을 부정한다"는 것이다.[66] 헤겔의 변증법에서 모순 개념은 부정(성), 특히 '자기관계하는 부정성'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67] 물론 피아제도 헤겔의 '부정(성)' 개념에 상응하는 '투사' 개념을 사용한다. 그러나 그가 인식적 도식들의 투사를 통한 영역혼합, 즉 안티노미의 발생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이 안티노미는 그에게 있어 단지 균형장애로서만 인식될 뿐이다. 또한 그가 헤겔의 '부정의 부정' 또는 '이중의 부정'에 상응하는 투사의 철회에 대해 언급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단지 "결핍[균형장애]에 대한 보상[균형]으로 작용하는 긍정적인 피드백" 또는 "긍정적인 부정의 부정"만이 있을 뿐이다. "이 두 번째 부정은 첫 번째 부정의 무화, 근원으로의 단순한 복귀를 의미한다." 그래서 케셀링은 피아제의 발생론적 인식론에서 "부정은 항시 자기 자신과

65) ebd., S. 97.
66) ebd., S. 97.
67) 이에 대해서는 조종화, 「헤겔 모순개념의 객관성과 구조」, 『헤겔연구』23, 한국헤겔학회, 용의 숲, 2008 참조.

관계하지 않으며",[68] 그 결과 부정의 부정 또는 투사의 철회를 통한 복귀는 단순한 "직접성의 회복" 또는 "자동적인 체계성으로의 복귀",[69] 즉 안정적인 균형의 회복을 의미할 뿐이다. 이에 반해 헤겔은 모순 개념과 근본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기관계하는 부정성'이 "모든 활동, 생동적이고 정신적인 자기운동의 가장 내밀한 원천이고 모든 참된 것을 자신 안에 갖는 변증법적 영혼"[70]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피아제의 이론에서 부정(성) 개념과 모순 개념이 의식의 발달과정에서 취하는 역할에 대한 경시는 이 발달과정에 대한 서술의 관점에서도 드러난다. 헤겔의 변증법이 의식의 발달에 있어서 모순 또는 안티노미에 대한 일종의 경험심리적이고 인식론적인 표현인 '회의, 절망이라는 측면'[71]을 보여주고 이를 세밀히 분석하는데 반해, 피아제의 발생론적 인식론은 의식의 발달에 대한 균형이론적인 측면에서 주체의 조작적 전략에 근거한 "낙관론적인 관점"[72]만을 취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해 보면, 피아제의 발생론적 인식론은 헤겔의 변증법에 비해 우연적인 요소들의 영향에 열려져 있으며, 체계 개방성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그의 갈등-균형-이론은 형식논리학의 무모순성의 원리에 근거하면서 모순, 안티노미의 생산적인 역할을 부정하고, 투사와 투사의 철회 사이의 내재적이고 필연적인 관계를 천착하지 않으며, 이를 주체의 조작적 전략으로 대체한다. 헤겔의 변증법은 피아제의 발생론적 인식론과 비교해서 일면 체계 폐쇄성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자기관계하는 부정성에 근거하는 모순, 안티노미의 생산적인 역할을 중시하며, 반성의 본질적인 구조, 즉 타자에로의 반성과 자기 내로의 반성 사이의 내재적이고 필연적인 관계를 추구한다. 케셀링은 피아제의 발생론적 인식론이 지니고

---

68) Th. Kesselring, *Die Produktivitat der Antinomie*, S. 155.
69) ebd., S. 149.
70) G. W. F. Hegel, *Wissenschaft der Logik* II, S. 563.
71) 헤겔은『정신현상학』에서 현상하는 의식의 도정이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며, 그래서 "이 의식에게는 개념의 실현인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상실로 간주된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이 도정은 "회의의 도정" 또는 "절망의 도정"이라 불린다.(G. W. F. Hegel, *Phänomenologie des Geistes*, S. 72)
72) Th. Kesselring, *Die Produktivitat der Antinomie*, S. 97.

있는 역동성을 재구성하면서 헤겔 변증법이 지니고 있는 형이상학적 찌꺼기를 제거하고 헤겔 변증법적 방법의 서술 개방성을 추구한다. 케셀링의 변증법적 모델은 헤겔의 '자기관계하는 부정성' 개념이 지니는 역동적인 통일구조, 즉 '자기관계'이면서 동시에 '자기관계의 부정'이라는 통일구조를 명확히 정식화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헤겔 변증법에서 모순, 안티노미의 생산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헤겔 변증법을 모델화하면서 헤겔 모순 개념의 본질을 형성하는 '자기관계하는 부정성' 개념을 외재적인 방식, 즉 피아제의 경험과학적 가설과 형식논리학의 한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설득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투 고 일: 2014. 01. 16.
심사완료일: 2014. 02. 04.
게재확정일: 2014. 02. 05.

조종화
국민대학교
교양과정부, 조교수

참고문헌

김재은, 「현대의 사상: 피아제의 사상 - 인식발생론」, 『한국논단』 12월호, 1992.

조종화, 「헤겔 모순개념의 객관성과 구조」, 『헤겔연구』 23, 한국헤겔학회, 용의 숲, 2008.

_____, 「헤겔철학에서 반성과 형이상학」, 『헤겔연구』 27, 한국헤겔학회, 용의 숲, 2010.

Flach, Werner, *Negation und Andersheit*, Ernst Reinhardt Verlag München u, Basel, 1959.

Garz, Detlef, *Sozialpsychologische Entwicklungstheorien von Mead, Piaget und Kohlberg bis zur Gegenwart*,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2008.

Hegel, G. W. F., *G. W. F. Hegel Werke in zwanzig Bänden* hrsg. v. E. Moldenhauer u. K. M. Michel, Theorie Werkausgabe Suhrkamp Verlag Frankfurt am Main 1969ff.

Bd. 2, "Differenz des Fichteschen und Schellingschen Systems der Philosophie".

Bd. 3, *Phänomenologie des Geistes*.

Bd. 6, *Wissenschaft der Logik* II.

Bd. 8, *Enzyklopädie der philosophischen Wissenschaften* I.

Bd. 10, *Enzyklopädie der philosophischen Wissenschaften* III.

Kesselring, Thomas, *Die Produktivitat der Antinomie*: Hegels Dialektik im Licht der genetischen Erkenntnistheorie und der formalen Logik, Suhrkamp Verlag, 1984.

Piaget, Jean, *Six Psychological Studies*, Translation from the French by Anita Tenzer, Translation edited by David Elkind, New York, 1968.

_____, *Meine Theorie der geistigen Entwicklung*, herausgegeben von

Reinhard Fatke, aus dem Amerikanischen von Hainer Kober, Beltz Verlag, 2003.

Richli, Urs, "Kritische Bemerkungen zu Thomas Kesselrings Rekonstruktion der Hegelschen Dialektik im Lichte der genetischen Erkenntnistheorie und der formalen Logik" in *Philosophisches Jahrbuch* 95, 1988.

Wandschneider, Dieter, *Grundzüge einer Theorie der Dialektik*: Rekonstruktion und Revision dialektischer Kategorienentwicklung in Hegels *Wissenschaft der Logik*, Klett-Cotta, Stuttgart, 1995.

ABSTRACT

Piaget's Genetic Epistemology and Hegel's Dialectics

Cho, Chong-Hwa

The genetic epistemology of Piaget and Hegel's dialectics are similar in that they are all dynamic theories grounded in the organic structure of an active mind. In comparison to Hegel's dialectics, the genetic theory of Piaget is more open to the impact of contingent foreign factors. Through this, his system achieves a character of openness. However, his theory denies the role of antinomy or absurdness because it relies on formal logic. He ignores the necessary and immanent relationship between projection and withdrawal and interprets this relationship as the operative strategy of a subject. In comparison to this theory, Hegel's dialectics emphasize the productive role of antinomy, which relies on the self-relationship of negativity. Of course Hegel's dialectics has the characteristic of self-sufficiency. Hegel is interested with the essential structure of reflection, namely he tries to elucidate the necessary and immanent relationship between reflection-in-others and reflection-in-self. Thomas Kesselring reconstructs the dynamic dimension of Piaget's theory in order to eliminate the metaphysical residue of Hegel's dialectics and in order to discover the openness of Hegel's dialectical method through it. Piaget's theory. To eliminate the metaphysical residue of Hegel's dialectics and in order to discover the openness of Hegel's dialectical method through it. However, his model of dialectics is not

successful in formulating the structure of unity which resides in Hegel's concept of ‘self-relational negativity’. Nevertheless, he succeeds in emphasizing the productive role of antinomy in Hegel's dialectics. What is important in his work is his attempt to elucidate Hegel's methodical concept of ‘self-relational negativity’ - so to speak - outwardly, in other words, through the studies of Piaget's empirical theory and the limit of formal logic.

Keywords: Equilibrium, Operation, Projection, Negativity, Antinomy